

칼럼 Column

사서교사 교직과정 이수제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김정현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위원장
jhkim@chonnam.ac.kr

21세기 정보화 사회나 지식기반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학교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초·중·고 시절부터 학교도서관을 통해 독서전략과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보나 지식사회의 마인드를 갖게 되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사서교사는 초중고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이러한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도서관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을 선도해야 할 사서교사의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2008학년도 대학 입학자부터 사서교사를 비롯하여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 모든 학과의 교직과정 승인인원이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로 감축 조정된 것이다.

이미 지난해 교육부의 교직이수과정 감축방안이 나왔을 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를 비롯하여 학교도서관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는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담당자에게 이의 부당함을 알렸으나 결국 금년 입학자부터 10%로 조정되고 말았다.

2007년 4월 2일자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에 비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하고 국가수준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학교도서관의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580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의 수는 무려 1만870여개에 이르고 있어 사서교사 배치율은 5.3%에 불과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학교도서관과 전문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7년에 166명의 사서교사가 충원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에는 200여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40년간 해마다 200명씩 사서교사를 임용하더라도 사서교사 배치율은 겨우 80%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이후에는 정년과 관련하여 퇴직 교사의 충원이 필요하므로 향후 매년 200여명 이상의 사서교사 충원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교직 이수 정원이 입학정원의 10%로 축소되어 대학에서 배출되는 사서교사는 140명 내외에 그치고 있다. 공주대학교의 25명 이외에 현재 4년제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32개 대학에서 1년에 배출되는 사서교사가 약 120명 이내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년 200여명 이상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70%에 불과한 인원만 배출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쟁을 통한 양질의 교원 임용이 아니라 유자격자 전원을 임용하고도 30%의 사서교사가 부족하게 되는 정책 실패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4년 후에 반드시 나타날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이를 대체할 사서교사의 양성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장기적으로 법학전문 대학원과 같은 사범대학의 교원전문 대학원 제도도 아직은 요원한 일이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보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배려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 것이다. 모든 교과교사에 예외없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편의성은 달성하였는지 모르지만, 사서교사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심각한 부작용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각 대학의 교직과목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이 30명인 경우, 교직 이수 정원 10%인 3명의 학생을 위해 반드시 개설되어야 하는 사서교사 교직과목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폐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서교사의 경우, 공주대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사범계열인 4년제 문헌정보학과에서 양성되고 있다. 이는 다른 교직과목과 달리 사서교사는 4년제 문헌정보학과가 사실상 사범대학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무시하고 모든 교직과목을 일률적으로 무 자르듯이 10%로 자른 것을 생각하면 학교도서관의 앞날이 그저 암담하게만 느껴진다.

- 학교도서관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문헌정보학과가 비사범계열이지만 실제적인 사서교사 양성기관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지금이라도 이러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수긍한다면 규제개혁차원에서 당장 10%의 벽을 허물고 최소한 30%수준 이상으로 원상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머슴의 역할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고자 안쓰러울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시원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소통은 절대 말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총리이하 장관이나 각 분야의 담당공무원들이 곳곳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교직원관련 담당자는 대통령이 나서서 전봇대를 뽑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는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도 아니다.

개혁을 위해 제도를 바꾸더라도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간과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일 뿐이다. 사서교사 수급과 관련된 이 문제는 2007년도에 바뀐 사항이므로 2008년도에 새로 취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자들은 모를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그 당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된 사항이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당사자들과 소통을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교직이수 정원을 문헌정보학 입학정원의 30%에서 10%로 감축 조정하는 것은 사서교사의 수급 측면을 고려할 때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학자들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독서지도가 학교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중심에는 바로 학교도서관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주)